

“美재계 ‘사회적 책임 선언’은 위기감서 비롯”

유명기업 CEO 181명 서명
“주주 제1주의 벗어나
빈부격차·환경문제 대응”
미국형 자본주의의 새 전기

미국형 자본주의가 큰 전기를 맞고 있다.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기존의 ‘주주 제1주의’에서 벗어나 고객, 납품업체, 지역 커뮤니티 등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빈부격차 확대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니혼게이지가(日本經濟)신문이 20일 지적했다.

금융자본주의의 폭주가 초래한 리먼 사태 이후 미국 기업들은 금융완화와 감세

덕분에 10년 동안 가장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가 이전보다 더 확대됐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최고 간부의 보수 총액 중간값은 종업원의 200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기업은 이익을 자사주 매입에 썼다. 주가 상승이 최고 경영자의 보수를 밀어올린 반면 종업원의 급여는 오르지 않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2030년을 예측한 저서에서 세계인의 “99%가 격노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도한 부의 집중과 환경부하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런 흐름을 미국 기업도 무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실시된다. 야당인 민주당 후보의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반자본주의를 명확히 내건 정

책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역풍의 강도를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BRT의 이번 성명에는 임금인상과환경대책 등 구체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은 아직 알 수 없다. 더 이상의 주가상승 기대에 한계를 느낀 경영자들이 목표를 바꾼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설사 그런 면을 고려하더라도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이번 성명에 연명으로 서명한 것은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명에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보잉의 데니스 뮐렌버그,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 등 181명의 CEO가 서명했다.

이해관계자 모두를 고려한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주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점도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문제에서는 유럽이 앞서 가고 있다. 영국은 상장기업의 ‘기업통치 지침’을 개정해 이해관계자로서의 종업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의 기업통치개혁은 오히려 주주중시로 기우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종업원과 거래처, 사회를 중요시하는 기업문화의 소지가 있는 반면 이익수준이 낮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의 성격도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다른 쪽으로 기울었던 시계추가 미국은 일본 쪽으로, 일본은 미국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미국 BRT가 발표한 성명의 제목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경제’다. 니혼게이지는 기업과 사회가 조화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최소한 현재의 연장선상에서는 답이 없어 각각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백악관 출입정지 플레이보이 잡지 기자 “수정헌법 1조 언론 자유 침해” 취소 소송

성인잡지 플레이보이를 대표해 백악관에 출입하는 브라이언 카렘 기자의 대리인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상대로 출입정지 취소 소송을 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카렘 기자 대리인은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백악관이 본부동과 부속건물에 기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 조치는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5조 정당한 법절차를 따질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전에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카렘의 변호사 테드 브투로스는 지난해 가을 백악관이 CNN 출입기자 집 아코스타에게 내린 출입정지 당시 사건과 같은 논거로 백악관 측을 압박했다고 WP는 전했다.

미 연방지법 티모시 켈리 판사는 집 아코스타 출입 정지 사건 판결에서 적정한 법 절차를 주장한 CNN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출입정지를 해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앞서 스테파니 그리삼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서한을 보내 30일간 백악관 출입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카렘 기자에게 전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1일 카렘이 서베스천 고르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과 논쟁을 주고받은 것에 비롯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뒤 건물로 들어갔고 카렘 기자가 남아서 질문을 받아 주겠다고 소리쳤다.

이때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카렘 기자를 향해 “당신은 기자가 아니다. 당신은 날라리(punk)”라고 말했고, 이에 카렘 기자가 발끈하며 고성이 오갔다.

또 같은날 백악관이 개최한 소셜미디어 총회에서 고르카와 카렘이 다시 한번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카렘은 출입증을 빼앗겼다. /연합뉴스

9조원대 F-16 전투기 66대
美, 대만에 판매 승인
中 대응 경고 속 갈등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80억 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대만에 대한 80억 달러 규모의 F-16 판매 방안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DSCA는 성명에서 “66대의 전투기, 75개의 제너럴 일렉트릭(GE) 엔진 및 기타 시스템을 판매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DSCA는 “이번 판매는 미국의 국가,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고 대만이 신뢰할 수 있는 방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대만이 이번 계약으로 록히드 마틴의 최신형 F-16V 블록(Block) 70기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16V는 F-16의 최신형인 블록 70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향후 양국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경상(耿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최신형 F-16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금리 최소 1%p 인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클라우스 요한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을 맞이 위해 나와 있다. 그는 요한니스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최소 1%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 F-2후속기 개발예산 내년 투입 추진...첫 스텔스기 목표

총개발비 17조원 이상 될 듯
내년 국방비 60조원 사상 최대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주력인 F-2 전투기의 후속기 개발비를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주도의 후속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개발비는 총액 1조5천억엔(약 17조57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F-2의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

대 중반에 후속기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내에선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며 후속기를 일본의 첫 국산 스텔스 전투기로 삼아 높은 공중전 능력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번 아니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 높은 수준의 대함 능력을 함께 갖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은 F-2와 같은 수량의 90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개발비와 관련해 예산안 요구에선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전망이다며, 올해 연말 예산 편성 때까지 기체 개요를 정리해 금액

을 산정할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결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는 F-2 후속기에 대해 “국제 협력을 시야에 두고 우리나라(일본) 주도의 개발로 조기에 착수한다”고 명기했다.

후속기 배치가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항공자위대 전투기 라인업에는 F-35 스텔스기 147대, F-15 개량형 100기 정도 함께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 요구와 관련해 사상 최대인 5조3천억엔(약 60조2천710억원) 규모로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유럽 민간은행 마이너스 금리 확산 일정액 넘는 개인 계좌 수수료 부과

유럽의 민간은행 사이에서 개인의 예금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덴마크 대형 은행인 유스케은행(Jyske Bank)은 잔고 750만 크로네(약 13억4700만 원)를 초과하는 계좌에 대해 연 0.6%의 수수료(마이너스금리)를 받는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스웨덴 민간은행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국채 등의 마이너스 금리 심화가 수익을 압박하자 예금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형국이다. 극단적인 금리하락의 악영향이 개인에게도 미치기 시작한 셈이다.

덴마크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16일 마이너스 0.7%로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아나스 던 유스케은행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만기가 몇년짜리인지에 관계없이 국채에서 금리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 예금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이너스 금리 환경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2012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금융기관이 맡기는 양도성 예금에 대해 현재 연 0.65%의 수

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초장기 국채까지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은행들은 예금에 대해 지불할 이자와 운용수익의 역마진이 심각해지고 있다.

스위스 UBS은행은 11월1일부터 잔고 200만 스위스 프랑(약 24억6700만 원)을 초과하는 스위스 국내 개인계좌에 연 0.75%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유로화 계좌에 대해서는 연 0.6%의 수수료를 물리는 대상을 종전 잔고 100만 유로 이상에서 50만 유로 이상으로 확대했다.

은행 측은 “저금리 상황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의 고액 전가를 늘리기로 했다.

크레디스위스은행도 9월1일부터 잔고가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개인 유로화 계좌에 연 0.4%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럽에서 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는 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돼 왔으나 개인에 대해서는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만 도입했다. 예금잔고가 많은 부유층에 한한 것이지만 대형 은행들이 가세함에 따라 금리하락의 영향이 개인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면 마이너스금리 적용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